잊을 수 없는 맛과 추억

돈가스는 사람들에게 흔한 음식 중 하나이다. 일본에서 유래되어 널리 퍼지면서 현재 사람들 일본식 돈가스, 경양식 돈가스 등 다양한 종류의 돈가스를 즐긴다. 그런데, 이 글에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좋아하는 돈가스의 종류나 소스 그런 게 아니다. 어떠한 종류의 돈가스든지, 또 흔한 음식일지라도, 돈가스가 내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음식임에 틀림없다.

어릴 때부터 나는 돈가스를 접할 기회가 많았다. 할머니가 돈가스집을 운영하셨어서, 할머니 댁에 방문할 때마다 할머니께서는 나에게 갓 튀긴 돈가스를 주시곤 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는 갓 튀긴 돈가스를 먹다보니, 어느새 돈가스는 나의 생활에 없으면 허전한 음식이 되었다. 그렇게 내 생활에 스며든 돈가스는 내 힘들었던 수험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준 버팀목으로 남았다. 학원을 마치면 3시간 이상을 앉아서 집중함으로써 생긴 피로감과 매주 보는 시험을 못봤다는 스트레스를 자주 받곤 한다.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행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학원을 마치면 항상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게 된다. 그럴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것은 할머니께서 해주신 돈가스다. 그 생각을 가지고 나는 일주일에 세네 번 이상 돈가스를 먹었다. 먹을 때만큼은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맛있고 행복하다는 생각만 들었기에, 돈가스는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음식이라고 생각한다.

내 기억 속 할머니께서 해주신 돈가스는 신선한 고기와 튀김가루의 향기가 어우러져 풍부하고 유혹적인 향이 난다. 갓 칠한 것처럼 노릇노릇한 빛깔이 내 식욕을 항상 자극한다. 튀김옷은 바삭하게 구워져 있다. 반대로 속은 부드러운 고기로 채워져 있어 한 입 베어 물면 고소하고 촉촉한 식감이 입안에 퍼진다. 고기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동시에, 튀김옷의 바삭하고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기에 내가 유독 자주 먹는 음식이다.

대학생이 된 현재에도 돈가스를 자주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만족감을 느낀다. 수험생활 때와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면,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힘들었던 시기에 돈가스를 먹음으로써 잠시나마 행복을 가져다주었던 기억이 바로 그것이다.

유년 시절과 10대 시절의 잊지 못할 음식이 돈가스였다면, 20대 때 혹은 대학생 때의 잊지 못할 음식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음식을 통해 그 시기에서의 기억을 꺼내어볼 수 있기에 이러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렇게 추억을 꺼내어볼 수 있는 음식이 하나 둘 쌓이다 보면, 그런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내가 겪었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오를 것이다. 지금까지 잊지 못할 음식인 돈가스는 나에게 매번 기쁨과 만족감을 선사해주는 음식으로서, 앞으로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남을 것이다.